

□ 배경

- 1960년대 일본의 경제 성장과 함께 다수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97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과 함께 업무상 사고의 선제적 예방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를 감소.

※ 그러나 현재 매년 약 11만 명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최소 4일의 업무손실일이 발생하고 있음

제12차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에서는 2011년 발생한 관동대지진 및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해복구 및 선제적 재해예방을 강조

□ 주요내용

○ 주요 사회변화 및 안전보건 정책의 방향

① 3차산업¹⁾의* 증가 및 업무상 사고의 변화

- 노동력이 1·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도매업, 소매업 및 요식업 등에서 더 많은 업무상 사고가 발생
- 1960년대 전체 노동인구(약 2천 3백만) 중 약 50%를 차지하던 3차 산업의 비중이 2010년 전체 노동인구(약 5천 4백만) 중 73%로 증가함

※ 1960년 노동인구 분포 : 제조업 (33.7%), 건설업 (8.4%) 및 3차 산업 (51.1%)

2010년 노동인구 분포 : 제조업 (18.2%), 건설업 (7.4%) 및 3차 산업 (73.2%)

② 리먼 브라더스 사태(Lehman's fall) 및 관동대지진(Great East Japan Earthquake)

③ 비정규직 및 도급업의 증가

- 1990년대에 전체 노동력의 20%를 차지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10년 34.3%로 증가
- ※ 시간제근로자(68%), 계약직 근로자(18.8%), 파견직 근로자(5.5%)

④ 출산율 저하 및 인구노령화

-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는 사회적 구조 및 고용환경 및 업무상사고발생에 영향을 줌.

1) 3차산업(Tertiary industry): 1, 2차 산업에서 생산된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3차 산업의 생산량과 종사하는 종업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3차 산업은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활동으로 상업, 금융업, 운수업, 관광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이 포함

⑤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적합한 규제

- 기술이 발달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위험요소(Hazard factors) 발생,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개별적 규제가 어려워 짐. 따라서 사업주의 장기적 관점기반 자율적 업무상 재해 예방관리가 중요

⑥ 정치적 상황 변화

- 사회경제적 이슈의 증가와 맞물린 경제침체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효과적인 예방은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지원과 예방을 필요로 함

○ 핵심 정책(Priority Measures)

-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주요대책

산업안전관리체계 설립, 도급업자 및 계약근로자 역할에 따른 위험성 평가 장려, 산업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 장려 등의 정책이 시행될 예정

- 노·사·정 협업을 통한 업무상 재해 예방

업무상 재해 예방 기관 및 산업안전보건 컨설턴트 육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 군에서 경험이 있는 안전 보건 분야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인적 자원관리 컨퍼런스 등을 개최

- 사회, 기업 및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

1) 최고경영진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 2) 중대재해가 일어났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 3) 일반인의 안전보건 의식 및 위험에 대한 민감도 증진

- 과학적(Scientific ground)·국제적 흐름에 기반을 둔 정책 장려

국가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연구결과 기반 정책을 장려하고, 국제적 안전보건 흐름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해야 함

- 고객, 제조사 및 시설 관리자의 예방 노력 제고

제조사 및 시설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계 설비 등의 제조단계에서 안전을 강화

- 관동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지진피해 복구 및 재건 작업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예방책 강구 및 원전사고발생대응·관리체계 수립 필요. 방사능 제어, 재건 및 복구 작업 시 방사능 위험 방지 실시.